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4호 [루게 제24647호] 주제 103(2014)년 8월 22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15일과 16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방송위성TV방송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조합한 김마시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중국의 《김일성신문》, 홍콩 방송위성TV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메바는신문 《알썬후리》는 전소케트란시합발사를 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중국신문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보도하였다.

나이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리마타일공장, 천지음활유공장, 평양양말공장, 전통물동무가 사

업하는 기계공장, 완공단계에 이른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 평양음악원, 애육원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민용항공총국과 특혜운송사이의 남자배우경기,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중합팀 너지축구집결령기를 지도하신 소식을 올렸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 활동소식을 최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중국 보도망은 조선의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 천리포수산연구소를 현지지도하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 최고령도자께서는 연구소에 들어서시 생애의 마지막시기인 2011년을 비롯하여 2차례나 이곳을 찾아 오시였던 김정은 동지의 영상이 못 건디게 그립다고 하시면서 연구소내에 그의 현지지도포식비를 정중히 건립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자고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인공수정실, 알발육실, 실내 및 야외양어, 사료공장, 물고기 가공공장 등 여러 곳을 돌아보시고 연구소앞에 나서는 파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어종들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고 양어에 적합한 물문제를 풀어 먹이생산의 국산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연구소에 현대적인 물고기 가공설비들이 그르히 갖추어진데 맞게 어종별에 따르는 가공방법과 물고기 가공품의 가치수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중국의 홍콩 《대공보》, 홍콩 방송위성TV방송, 일본의 교도통신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의 《김일성신문》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보고 그이께서 최전연을 지키고있는 조선인민군 제171군부대의 초소들을 시찰하신 소식을, 민주공화국제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사건설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게재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연구토론회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자》를 12일 남아프리카 프리데리아 코피마스터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자》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14일 벨라루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 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발행식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로작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 동지의 위대한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길이 빛내어나가자》에 대한 연구토론회가 14일 벨라루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 장에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었다.

또한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전적로작에 대한 해설이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벨라루스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 책임자는 조선의 선군정체는 건군절과 함께 혁명무력건설에 중요한 리정표를 새긴 력사의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방크사단에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것은 선군혁명명도의 계속과 선군명도의 새 출발을 선언한 뜻깊은 사변으로 된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선군혁명명도가 있었기에 조선인민군은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자라나고 사회주의조선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용을 당당히 떨칠수 있었으며 조선인민은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도전을 결함이나 짓부시고 나라의 존엄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수호할수 있었다.

로작의 갈피마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선군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한성 하려는 김정은 동지의 드림없는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위대한 주제사상, 선군사상이 사회주의조선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와 천만민들의 일심단결, 무적필승의 조선인민군이 있는 한 조선의 주제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선군은 진정한 평화수호의 보검

우리 나라를 방탄한 외국의 뱀들을 조선반도의 평화는 오직 조선의 전쟁억제력강화를 통해서만 수호될것이다고 하면서 선군정치에 대한 지지와 연대성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제사상국제연구소 사무국장 오가미 경이씨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강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끝장내지 않고서는 모든 나라들에서 평화를 실현할수 없다.

온갖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민의 지향과 념원은 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력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

현실은 선군의 길로 나아가갈 때만이 자주적이며 평화로운 세

세계를 건설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백두의 천출위인들을 모시었기에 조선은 무진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을 가질수 있었으며 이것은 진보적인루게 본보기로 된다.

로씨야방공상당대표단 단장 까즈크 마이씨에대한 이렇게 토론했다.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 동지께서와 김정일 동지께서는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리선전적문제들을 환히 밝혀주시고 총대로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끄시었다.

선군으로 조선인민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어 혁명과 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그분들의 업적에 대하여 로씨야인민들은

잘 알고있다.

오늘 조선은 탁월한 령도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뭉쳐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걸출같이 내달리고있다.

이는 진보적인루게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우리는 사회주의의 승리적진전을 위해 세력분들과 투쟁하는 정의의 공동선에 조선인민과 언제나 함께 서있을것이다.

메히코로동당대표단 단장 알베르도 아나야 구다에씨는 탁월한 천출과 현명한 령도력, 고매한 덕망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인상을 높이 칭송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 선군정치를 빛나게 계승해 나가시기에 조선

은 사회주의강성국가로 성과를 올리고있으며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자기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고있다.

조선은 선군정치를 철저히 구현하여 자기 발전의 새로운 단계에 확고히 들어서고있다.

선군정치와 있어 조선은 군사력이 비상히 강화되고 최강의 군대를 가질수 있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위협과 공갈에도 적극적인 공세를 취할수 있었다.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조선에 무서워하고있다.

선군정치가말로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민족의 번영을 담보하는 최강의 무기, 진정한 평화수호의 보검이다.

[조선중앙통신]

조선의 선군절 기네단체블레진특간호발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4돐에 즈음하여 주제사상연구 기네단체위원회에서 12일 블레진특간호를 발행하였다.

블레진은 《불멸의 선군업적》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1960년 8월 25일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선군혁명명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날이다.

장장 반세기에 걸친 김일성 동지의 선군혁명명도의 조선의 반만년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통성변명의

새시대를 열어나왔다.

김일성 동지의 손길아래 오늘 조선인민군은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났으며 조선의 군력은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이의 선군혁명명도는 오늘 위대한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그대로 이어지고있다.

블레진은 《조선의 선군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선군절은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일성 동지의 선군혁명

명도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김일성 동지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방크사단을 현지지도하신것은 실로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사변으로 된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이날부터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수많은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시었다.

그이의 손길아래 최첨단무력으로 자라난 조선인민군은 미

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련합세력의 끊임없는 대결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하였다.

일심단결로 필승불패하고 자위로 굳건하며 새 세계 산업혁명으로 부강번영해나가는 조선의 경이적인 현실은 김일성 동지의 선군혁명명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로 나라와 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억년기회를 마련하신 김일성 동지의 업적은 조선의 선군절과 더불어 길이 빛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경제강국건설도 문명국건설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본태있게 하자

270여건의 기술혁신안 먹이풀생산에 도입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2월17일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서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돌격대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품들의 나열을 활짝 펴고 재능과 열정을 총출발시켜 먹이풀생산에서 확고한 진영을 열어놓았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들은 토지개량과 땅다루기, 유기질비료생산, 먹이풀씨뿌리기 및 비배관리와 과학화할수 있는 270여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먹이풀생산에 도입함으로써 계획된 면적에서 생산량을 최대한 늘일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당이 마련해준 과학기술품들이 날개를 활짝 펴고 과학적재능과 열정을 총출발시켜 누구나 다 높은 과학기술성공품을 내놓음으로써 부강조국건설에 이바지하는 참된 애국자가 되여야 합니다.》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돌격대 일군들은 과학기술의 앞날 열매로 우리 식 대규모축산기지건설을 힘있게 추동할 애국의 마음 안고 돌격대원들이 울헤안으로

포탄조성을 끝내기 위한 투쟁의 앞장예 짜고도록 전투조직을 치밀하게 짜고들었다. 고통철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원들이 현지에서 나가 풀밭조사에서 철박하게 나서는 문제를 총지휘로 돌리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도입을 결정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내밀도록 적극 떠밀어주었다. 특히 먹이풀밭조성에 불리한 지대와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위한 과학기술적도입에 힘을 넣도록 조치사업을 실속있게 하였다.

세포지구 어디에서나 과학기술성공과 대고조건의 돌파구를 열어제끼기 위한 총공세의 불길이 새겨져 파번졌다.

지력을 높이기 위한 기술혁신안들이 적극 도입되어 토지개량전투에서 혁신이 일어났다.

돌격대에서는 토양분석을 과학적으로 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하게 짜고들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지구별로 맡고나자 여러차례에 걸쳐 3000여개소에서 토양분석을 진행하고자 노력, 포진별, 필지별 토지개량방법들을 완성하였다. 또한 중앙원장지휘부와의 긴밀한 련

계미를 해당 단위들에 나가 그 수행방도를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조직하였으며 기술지도에 힘을 넣었다.

높은 과학기술성공과로 조선 속도장조의 불길을 새차게 일으킬 불같은 마음을 안고 인민보안부러단을 비롯한 단위들에 나가 돌격대원들은 여러가지 유기 팜물질비료를 자체로 생산하여 도입하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10여가지의 각종 성장촉진제를 생산하여 종자처리와 어린 먹이풀 모판리에 적극 리용하였다. 결과 싹트는 기간을 앞당기고 먹이풀모를 빠르게 재배위 1200여정보에서 생산량을 증진보 1.2배이상 늘일수 있게 하였다.

돌격대에서는 먹이풀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사업과도 적극 도입하였다.

돌격대원들은 먹이풀판이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사업과도 적극 도입하였다.

돌격대원들은 먹이풀판이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사업과도 적극 도입하였다.

돌격대원들은 먹이풀판이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사업과도 적극 도입하였다.

계미를 엄격히 하고 병충해를 미리잡기 위한 과학적인 종자처리방법도 적극 받아들였다.

또한 먹이풀씨뿌리기의 질을 보장하며 먹이풀씨의 싹트는율을 높일수 있는 많은 방도들을 찾았다. 그리고 두둑식과 고평식 등의 재배방법에 의한 풀밭조성, 가물조건에서의 씨뿌림방법들을 완성하여 모든 단위들에 도입하였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10여가지의 각종 성장촉진제를 생산하여 종자처리와 어린 먹이풀 모판리에 적극 리용하였다. 결과 싹트는 기간을 앞당기고 먹이풀모를 빠르게 재배위 1200여정보에서 생산량을 증진보 1.2배이상 늘일수 있게 하였다.

돌격대에서는 먹이풀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사업과도 적극 도입하였다.

돌격대원들은 먹이풀판이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사업과도 적극 도입하였다.

돌격대원들은 먹이풀판이 과학기술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사업과도 적극 도입하였다.

를 철저히 세울수 있게 하였다.

또한 농약효과를 높이기 위한 활성제를 개발하고 자체로 생산하여 모든 단위들에 공급하였다. 그리하여 종진보 1.2배싹트를 15%정도 적게 쓰면서 집압이효과를 10%이상 높였다.

지식경제건설의 지름길을 열어놓을 높은 목표를 제기한 돌격대에서는 먹이풀의 생육단계별비배관리를 잘할수 있도록 생육유예보조제를 힘써 넣음으로써 현상지회부와 모든 단위 일군들, 돌격대원들이 먹이풀생산에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적극 도와주고 떠밀어주었다.

돌격대에서는 창조적지혜를 합쳐 새로 조성할 풀밭의 지리적특성, 토양상태,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품종배치를 적격적, 적지적적의 원칙에서 할수 있도록 풀밭전지지도도를 작성함으로써 먹이풀생산의 과학적 단계를 마련하였다.

지금 2월 17일 과학자, 기술자돌격대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축산물생산량을 늘이는 데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실천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내밀고있다.

본사기자 정영철

새 제품개발성과 확대

식료일용공업성에서

식료일용공업성에서 당의 경공업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새 제품개발사업을 잘 이끌어가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경공업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기술력을 튼튼히 꾸려 새 제품개발능력을 높이며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성일군들이 당조직의 지도밑에 새 제품개발능력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써 넣고 경제발전과 지도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최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전방성있게 밀고나가는 한편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가 과학기술력을 튼튼히 꾸리는 사업을 적극 도와주어 새 제품개발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도록 하고있다.

식료공업부에서 여러가지 맛좋은 식료품들이 많이 개발되고있다.

특히 선홍시료공정에서는 새 제품개발전략을 출세 새우고 산자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발양하여 인민들속에서 인기를 끄는 갖가지 식료품생산량을 계속 높이고있다.

최근 공정에서는 연질사탕생산공정을 새로 확립하고 생산을 시작하여 인기를 끌고있다.

평양기초식품공정에서도 인민들의 다양한 식생활기호에 맞게 여러가지 고추장, 간장을 새로 개발하고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최근 인민들속에서 식생활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공정의 맛 좋고 질 좋은 제품들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다.

일용공업부에서도 여러가지 새 제품개발을 위한 공정을 새롭게 확립하였다.

성에서는 인민의 리익의 전지에서 새 제품개발지도를 정하고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생산공정을 꾸리는 사업을 힘있게 밀어주었다.

평양일용공업공장에서 여러 일용잡화생산공정이 꾸려졌다.

일마전 공장에서 서류형생산공정과 음과식전지출생산공정, 허귀계생산공정을 새로

꾸려놓고 시제품생산을 진행하였다.

공정에서는 수백개의 허귀계를 생산하여 류경구강병원에 보내주었는데 병원의료일군들과 인민들이 좋아하고있다.

신의화장품공정과 평양화장품공정에서도 인민들의 구강에방치도 도움을 주는 구강수액을 개발하고 생산을 내밀고있다.

담배련합기업소 평양담배종이공정에서 현대적인 공은판지생산공정을 꾸려놓고 시운전준비를 다그치고있다.

이번에 새롭게 꾸려진 현대적인 공은판지생산공정은 담배공장만이 아니라 사랑, 파자를 비롯한 각종 소비품에 대한 포장을 새롭게 확립하였다.

성에서는 인민의 리익의 전지에서 새 제품개발지도를 정하고 여러 공장, 기업소들에 생산공정을 꾸리는 사업을 힘있게 밀어주었다.

평양일용공업공장에서 여러 일용잡화생산공정이 꾸려졌다.

일마전 공장에서 서류형생산공정과 음과식전지출생산공정, 허귀계생산공정을 새로



경제강국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한 비료생산설비를 힘있게 벌리고 있다.

— 농남비료련합기업소에서 —

본사기자 김진명 찍음

강계포도송공장현대화공사 적극 추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경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여야 생산을 최대한으로 늘일수 있으며 큰 밑천을 들이지 않고도 인민소비품을 더 많이 생산할수 있습니다.》

강계포도송공장현대화공사가 본격적으로 다그쳐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언대로 강계포도송공장을 현대화하여 질 좋은 포도송을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당당위원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도급, 시급급당의 능력있는 일군들로 강계포도송공

장 현대화공사지휘부를 조직하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달려나온 수백명의 로동자들로 돌격대를 꾸어 현대화공사를 다그치고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맡은 공사과제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돌격전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현대화공사를 다그쳐 끝낼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일을 대담하고 용이 가지지 않고있다. 그리하여 20일현재 건축공사를 70%이상 해제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기간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헌신적 투쟁을 벌려 기본생산건물의 내부구조공사와 증축공사를 붙이면서 나간 다그쳐 끝내고 리발실, 미용실, 목욕탕 등을 갖춘 문화후생시설을 새로 일떠세웠다. 이와 함께 기본생산건물의

외벽미장, 타일붙이기, 색칠관기와의우기를 끝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맡은 공사과제를 다그쳐 끝내기 위한 돌격전을 계속 힘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위원발전소중대, 강계청년발전소중대, 전천탄광중대, 연풍광산중대의 돌격대원들은 맡은 작업과제를 매일 150%로 넘쳐 수행하면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고있다.

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건축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기계, 운반차, 출제, 나그레, 리발실, 미용실, 목욕탕 등을 갖춘 문화후생시설을 새로 일떠세웠다. 이와 함께 기본생산건물의

사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제때에 풀어주는것과 함께 설비조비를 따라세우기 위한 작전도 예견성있게 해나가고있다.

도립관리국을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많은 단위들에서 강계포도송공장현대화공사를 제일처럼 힘껏 도와나서고있다.

도에순탄애술인들과 도애술선전대원들이 현대화공사장에 달려나와 경제건설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며 돌격대원들의 전투적기개를 부쩍 높여주고있다.

도의 일군들은 현대화공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데 맞게 포도송 체제를 따듬이기 위한 사업을 지금부터 짜고들고있다.

특파기자

승리와 영광의 선군시대를 열어놓으신 위대한 업적 불멸하리

선군혁명경도의 위대한 역사를 더듬어

불세출의 령장께서 창조하신 빛나는 계승의 역사

장정 50여년!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선군 혁명도사는 총대에 민족의 운명을 엮고 군력이자 국력이자 보신 불세출의 위인께서 창조하신 빛나는 역사인 동시에 수령의 위업을 100% 계승하는 위대한 후계자께서 개척하실수 있는 빛나는 계승의 역사이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의 리념에 대하여 이렇게 밝히셨다.

사회주의리념은 자기 수령을 옹호하는 리념이다. 자기 수령을 옹호할 줄 모르던 사회주의리념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디다. 나에 수령님의 사상을 100%로 접수하고있습니다. 이 수자는 수령님의 사상을 절대적으로 신봉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신념화, 절대화하셨다.

위대한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자신의 평생의 리념으로 받아들이고 철저히 완벽하게 계승하셨으며 현실로 꽃피우신 여기에 불세출의 선군혁명도사로서의 우리 장군님의 위대성이 있다.

선군의 리념,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생애에 관통되어있는 불멸의 정치선조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도사는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전승에 대한 결정을 온몸의 힘으로써 수령님의 선군혁명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신 숭고한 총정의 역사이다.

팍스나 메넨의 학살이 과학임을 물려서 현태수정주의자들이 온갖 거짓말살하려고 하였던가, 아니다. 로동계급의 수령에 대한 총실성이

없었기때문이다.
1980년대에 세계를 휩쓴 이른바 《완화》와 《화해》의 회오리속에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에서 적자에 대한 식별이 모호해지고 계급의 칼과 총이 용광로속에 들어야 한다는 리론이 대두하였다. 확고한 리념과 의지가 없는 종잡기 힘든 문제들이 발생하고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예측불가능하게 번져있고있는 첨예한 국제정세를 예리하게 분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었다.

총이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혁명이 끝난지도 모르고 총알맛이 어떤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시며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우리 당의 체험에 대하여 강조하시면서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손에서 총을 놓지 않을것이며 더 위대한 총을 만들어낼것입니다라고 선언하시었다.

세계정치정세가 어떤 기류를 타고 어떻게 흘러가든지 조선은 변함없이 총대를 굳건히 틀어쥐고 힘차게 나아가갈것이라는 신념과 의지가 위대한 장군님의 굳건하신 모습에 자리잡혔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김정일동지께서 1960년 8월 25일 조선인민군 근위서울유격부대 105명사단애령도의 자욱을 새기신것은 선군혁명위업의 계승과 선군혁명도사출발을 선언한 역사적사건이었습니다.》

일찌기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받아안은 권총과 더불어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평생의 리념으로

간직하시었으며 수령님을 모시고 혁명의 길을 걸으시며 총대의 필요성을 심장으로 체득하시었기에 그리고 수령님께서 로고를 바치시며 마련하신 나라의 군력을 더욱 튼튼히 다져지는것을 자신의 필생의 사명으로 간주하시었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 총대를 확고히 내세우시고 선군의 길을 끝까지 걸으신것이었다.

잊을수 없다. 피눈물속에 주제 83(1994)년을 보내고 새해 주제 84(1995)년을 맞이하였던 그때 우리 장군님께서 과연 어디에서 력사의 자욱을 흘리시었는가!

슬픔을 힘으로 바꾸어 피눈물의 바다에서 분연히 일떠선 우리 군대와 인민앞에 역사에 류폐없는 시련의 길이 놓여있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군대의 그 구본대를 찾으셨었다.

세상에 다박술초소로 그 이름 전해지고있는 인민군구본대에 대한 장군님의 력사적인 현시찰은 선군정치의 전연적인 확립의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알리는 위대한 사변이었다.

그것은 백두에서 시작된 선군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위대한 수령님의 모상을 앞으로 계속 계시시려는 철의 신념과 의지의 표시이기도 하였다.

하기에 맺어선 공상들과 불거져 거리를 뒤에 남기시고 전신시찰의 길에 오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더욱 억세게 틀어쥐신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총대였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봐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시며 철령을 넘으시고 오성산에 오르시었고 파도사나운 초도로의 항행길을 헤쳐가신 우리 장군님이시다.

조선혁명의 초행길에서 위대한 수령님 한분만이 통찰하신것처럼 위대한 장군님 한분만이 조선의 진로를 꿰뚫고계셨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께서 혁명활동의 첫 시기 무장대로부터 조직하고 총대에 의거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시었으며 조국을 해방한 다음에 당도 국가도 창건하시었고, 수령님께서 해방후에도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언제나 군사 문제에 선자적인 관심을 돌리시고 혁명무력을 끊임없이 강화하는데 혁명과 건설의 승리적전진을 군사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시었다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력사의 준엄한 시련을 통하여 검증된 필승불패의 정치이며 혁명의 총대위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도 변영도 없다고 혁명승리의 철리를 천명하신 우리 장군님은 참으로 시대의 새로운 사상리론인 선군사상리론의 위대한 대가이시었다.

진정 우리 장군님 한분만이 걸으신 길이었다.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힘의 대결이며 반제군사적전선은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존망을 판가리하는 혁명의 기본전선이라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헤치신 전선길은 제국주의와 총대로 총질당할 당락과 배짱을 지니신 강철의 령장만이 개척할수 있는 사생결단의 길

이었다.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이겨내고 제국주의와의 대결에서 편편편승을 이룩하던 주제 92(2003)년 위대한 장군님께서 총대를 갈채우고 헤쳐오신 혁명의 길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시면서 군사를 총리하고 군대를 강화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벌써 망한지도 오래였을것이라고 하시 말씀은 얼마나 심오한 진리와 준엄한 력사를 되새겨주는 것이었다.

선군정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인민의 행복을 지켜낼수 없었으며 동무들이 발전을 할수 없었는것이라고, 오성산만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난다고 하신 그날의 말씀에서 비껴오는 우리 장군님의 초강도강행군전선길을, 가슴저미는 로고를 인민은 천추만대 잊지 못할것이다.

자신의 정치는 수령님의 정치와 조금도 다른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선군정치는 모든 승리의 담보이며 선군정치를 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이것은 진리이고 법칙이라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은 우리 장군님이 시야말로 혁명의 수령이 개척한 길을 변함없이 수령과 함께 걸으신 위대한 계승자임을 뜨겁게 세겨 주셨었다.

그렇다. 선군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령도하여오신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며 영원한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다.
선군의 력사를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면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어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이루어질것이다.

본사기자 박 철

새로운 술어, 새로운 개념

선군, 선군정치라는 말은 우리 장군님께서 력사상 처음으로 쓰신 말이다. 우리 장군님에 의해서 선군, 선군정치라는 새로운 정치술어가 태어났으며 선군혁명, 선군혁명론이라는 술어도 생겨났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도사, 선군정치는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고 인민군대의 혁명적기질과 전투력을 외격하여 조국 혁명,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도

방식, 사회주의정치방식이라고 밝히시었으며 선군정치에서는 군사가 첫째이고 군대가 혁명의 핵심부대, 주력군이며 군대를 강화하는것이 기본이라고 가르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국주의와의 대결은 힘의 대결이며 반제군사적전선이 나라와 민족, 사회주의의 존망을 판가리하는 우리 혁명의 기본전선, 제일생명선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밝히시고 군사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야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구원하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 이끌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우리 장군님에 의하여 선군과 관련한 새로운 정치술어, 개념이 태어났을 세계정치, 리론계의 사변으로 일컬으며 그 술어와 개념의 진리성과 심오성에 온 세상의 혁명적 기본전선, 제일생명선으로 된다는데 대하여 밝히시고 군사에 힘을 집중하여 인민군대를 강화하고 그에 의거하여야만

본사기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마자르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부대원수드

마자르공화국 대통령 아 데 르 야 노 쉬 각 하
나는 마자르공정정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인민에게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앞으로도 좋게 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나라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당신과 귀국인민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 영 남 평 양
주제 103(2014)년 8월 20일

박 봉 주 총 리 조국보위는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

대안친선유리공장 현지료해

박봉주총리는 생산적양으로 들끓고있는 대안친선유리공장을 현지에서 료해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령적인 령도에 의하여 현대적으로 꾸러진 공장의 여러 직장들을 돌아보면서 총리는 규격별에 따르는 관유리와 열선반사, 강질유리생산설비 등을 알아보고 협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갖가지 유리 제품들을 국산화하는데서 일수가 많고있는 업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능력확장공사를 다그치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다.

총리는 공장의 일꾼들과 로동계급이 증산투쟁을 힘있게

벌려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총리는 장산판관을 돌아보면서 내화물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기 위한 방도들을 토의하였다.

【조선중앙통신】



1980년대에 저물어가고 있던 어느날 동유럽의 한 나라에서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제국주의자들과 결탁된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추악한 반사회주의적책동의 영향으로 국내에서 반정부조직이 일어났을 때였다.

군대의 최고사령관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에 혁명의 현수들을 진압할데 대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나 군대는 명령을 집행하지 않았다. 결국 사태는 협약하게 번져지게 되었다.

이것은 군대를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지 못한

현 혁명의 전위물들을 고수할수 없었으며 아무리 위대한 무장장비도 그런 군대의 손에서는 막대기가 못하다는것을 보여 주셨었다.

미세가 우리 공화국을 먹여보려고 머저날뉘고있지만 어찌하여 감히 덤벼들지 못하고있는가.

강력한 핵억제력을 갖추었을뿐 아니라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억세게 다져진 우리 인민군대의 정신력이 무엇보다도 무섭기때문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령적인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수령사용위를 생면으로 하고 최고사령관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결사관철하는 선봉대, 선군혁명위업수행의 전위대로 자라났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도사령도의 력사는 곧 우리 인민군대의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

시어주시었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얼마나 뜨겁게 말씀하시었는가.

평양은 수령님께서 계시고 우리 혁명의 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조국의 심장이라고 하시면서 동무들이 지켜선 초소는 평양과 한걸도 잇닿아있다는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전사들의 가슴에 충린 군인의 사명을 아로새겨주신 장군님.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의 강군으로

으로 튼튼히 다져오신 력사이다.

주제 49(1966)년 8월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인민군대 구본대를 찾으시신것으로 선군혁명도사의 첫 자욱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3년후 대역산초소를 찾으시어 인민군대가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일당백》의 구호를 튼튼히 틀어쥐고나가도록 이끌어주시

였으며 바다가초소에 해안포병들과 하루를 보내신 주제 56(1967)년 7월 어느날에는 전사들의 가슴속에 파업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군

대 대한 방침은 수령님의 강령이며 자신의 강령이기도 하다고 강조하시었다.
그러시고 전군에 당의 령도적 계를 보다 철저히 세우기 위한 방도들을 제시하시었다.

선군혁명도를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인민군대가 수령사용위의 구호를 더욱 높이 들으시게 하도록 하시며 전군을 사상의 강자, 신념의 강자로 키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나라의 혁명무력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가면서 수령의 사상과 령도를 제일 앞장서서 받드는 혁명의 주력군의 위력을 떨칠수 있었고 사회주의수호전과

대 사업을 지도하시며 주신 강령적인 교시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에 담겨진 가장 중요한 사상은 인민군대가 당과 수령의 군대이며 당의 혁명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군대이며는것을 밝힌것이라고 가르쳐주시면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인민군대를 정치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할

영예로운 사명을 다 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의 훌륭함 령도의 결과라고 뜨겁게

강성국가건설의 기등으로서의 중대한 사명을 다해나가게 되었다.

하기에 어버이수령님께서 언제든 선군의 길을 자신과 함께 걸으시며 군건설에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업적을 칭송하시면서 인민군대가 오늘과 같이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일당백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발전되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보위자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김정일동지의 훌륭함 령도의 결과라고 뜨겁게

말씀하신것이다.
인민군대를 사상의 강군, 신념의 강군으로 키우시어 반미대결전선에서 백승을 떨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에 끝없이 매혹되어 주제 74(1985)년 8월 어느날 이전 선군대의 한 고위인원은 장군님을 만나뵈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

《존경하는 김정일동지! 저는 이제부터 김정일장군, 당신의 부인이 되었읍니다.》

그가 우리 장군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흠모하였으면 그렇게 말하였겠는가!

채 히 성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

로 이처럼 혁명의 총대를 어깨에 걸고 우리 당의 선군사상과 위업,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위물들을 굳건히 옹호하고 수호하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당과 수령에 대한 최대의 충정이 있고 최고의 애국이 있으며 청년의 가장 값 있는 긍지와 보람이 있다.

—조국보위는 우리 청년들이 청춘시절을 가장 값있게 보람있게 빛내이기 위한 신성한 사명이다.

사람의 한생에서 청춘시절은 가장 귀중한 시절이다. 보람찬 청춘시절을 조국을 보위하기 위한 길에 바치는것처럼 더욱 고귀한 삶은 없다.
가렬처절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리수부영은은 18살의 꽃나이에 적의 화구를 막고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그에게도 청춘시절의 아름다운 리상과 포부가 있었다. 그러나 조국이 없었다는 청년들의 희망과 미래도 없다는 삶의 절리를 심장속에 간직 한 그것기에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을 사슴없이 바쳐싸웠던것이다. 이런 삶, 이런 청춘이야말로 영원토록 빛을 뿌리는 가장 값있는 삶인것이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라난 청년이라면 누구나 조국을 보위하기 위한 길에서 청춘의 보람과 행복을 찾아야 한다. 항일혁명시절의 불타는 조국애, 1950년대에 발휘된 전화의 용사들의 숭고한 조국수호정신을 따라배워 보람찬 삶을 안겨주고 빛내여주는 어머니조국을 한복숨바쳐 보위하는 참된 전사가 되어야 한다. 바로 여기에 가장 아름다운 삶이 있고 빛나는 청춘이 있다.

—조국보위는 청년들을 선군시대의

열혈투사, 청년전위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혁명가의 품모와 자질은 결코 저절로 갖추어지지 않는다. 쇠는 고열로 풀어진지는 로속에서만 강철로 되듯이 누구나 다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이겨나가야 어려운 투쟁에서만 불굴의 혁명가로 자라날수 있으며 선군시대를 빛내어나가는 투쟁의 기수, 열혈의 투사가 될수

있다.
인민군대는 청년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참다운 혁명가, 열혈투사로 키워내는 혁명대학이다. 청년들은 군사복무를 통하여 혁명적으로 교양되고 단련되며 그 어느 교과서에서도 체득할수 없는 한생의 귀중한 체험을 쌓게 된다. 군사복무의 보람찬 나날에 청년들은 투철한 수령사용위정신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 구체적인 헌신들을 대한 치초는 중요성과 비례적인 투쟁정신, 고상한 혁명적지도를 체질화하게 된다. 그리고 눈보라치는 추운 밤에 언 땅에 엎어져 잠복근무도 하고 하루밤사이 배역리적 행군도 하는 과정에 청년들은 강의한 의지와 난관을 뚫고나갈 때는 투지를 키워나가게 된다. 참으로 군사복무는 청년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도덕면적으로, 육체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열혈투사들로 자라나게 하는 인생의 더없이 귀중한 계기로 된다.

모든 청년들은 누구나 조국보위초소에 달려나가 총대를 우리 당을 받들고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지키는 믿음직한 수호자가 되어야 할것이다.

우 수 경

내 조국은 위대한 선군의 덕을 노래한다

8월의 높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가슴을 뜨거운 추억으로 한없이 울렁이게 하는 화폭들이 있다. 다박솔초소의 눈부신 설경우에 포진들이 번쩍일 때 철령의 험준한 산악에는 사연깊은 안개가 흐르르흐르르다. 행복이 커갈수록, 이 땅우에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웃음소리 높이 울릴수록 선군의 덕을 잊지 말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는 어머니 대지의 부락이런가 바라볼수록 가슴은 숨없이 젖어든다. 선군의 자욱 빛나는 그 숲술 아래, 선군의 상징으로 우뚝 솟은 그 굽이굽이아래 펼쳐진 행복의 별천지, 웃음의 강산을 보라. 기쁨의 물보라 끝없이 날리는 문수물놀이장이며 화려한 바다세계를 펼친 통라곰둥이관, 인민들이 너도나도 찾는 개선청년공원유희장, 생의 끝없는 활기를 파시하듯 말발굽소리 우렁찬 미림승마구락부...

어찌 그뿐인가. 마석령의 스키바람,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들에 펼쳐진 부귀영화의 금방석들은 또 얼마나 가슴뜨거운 사연들을 이야기해주는것인가. 그 무슨 설명이 따로 필요하랴. 씨앗없는 열매가 없고 뿌리 없는 거목이 없다. 우리 인민이 향유하는 만복의 열매들은 어느것이나 할것 없이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몸소 뿌려주신 선군의 씨앗에서 움튼것이고 아버지장군님께서 한평생 바치신 강행군로교를 뿌리로 하여 이 땅우에 펼쳐진 것임을 행복의 만경화가 다 말해주고있다. 이 나라의 나무 한그루에 물어보고 이 하늘아래 물과 공기를 한껏 들이켜보고 우리가 쓰고사는 집집의 창가들에 귀를 기울여보라. 어디서나 우리 장군님의 이야기를 들을수있고 장군님께서 인민을 위해 걸어오신 선군길의 만만사연이 배부한 스며들

것이다. 선군, 그것은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서 인민의 부귀영화, 인민의 만복의 꿈을 위해 꾀없이 이어오신 혁명의 길이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 수령님께서 한생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사회주의의 조선을 계국주의원수들의 침략과 고립압살의 광풍속에서 기어이 지켜야 하겠기에 그이께서는 값비싼 희생을 요구하는 선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사는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철저한 반제자주, 끝없는 애국헌신의 력사이며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 대한 절대적 믿음과 친어머니 사랑으로 수놓아진 승고한 믿음과 사랑의 령도사입니다.》

인민에 대한 그이의 최대의 사랑이었고 최고의 헌신이었고 최상의 보람이었다. 우리의 장군님 승죽은 공장들과 힘겨운 생활난을 겪는 인민들의 모습을 뒤에 두시고 전선길 이어가실 때마다 자주 러치군 하시던 심중의 말씀 력사의 벽을 쿵쿵 울리며 메아리쳐온다. 그 어떤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회주의를 지키고보아야 한다. 사회주의를 지켜내기만 하면 인민생활을 푸는것은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의 통장훈을 부르게 될 때 인민들은 내가 왜 경제사정이 곤란하다는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전진사찰의 길을 이어나갔는가 하는것을 리해하게 될 것이다! 력사는 진리를 검증하는 시금석이다. 멀리 세월은 흘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이란 말은 력사책의 갈래에 찍어지고 곱에서만 그려보던 부귀영화가 현실로

꽃피어나 우리 장군님 말씀의 그 뜻이 천군만군으로 새겨진다. 행복이 아무리 귀중해도 존엄을 떠난 행복, 총대없는 행복이란 있을수 없기에 그이께서는 총대로 사회주의근집의 대들보를 굳건히 지켜가시었다. 원수앞에 굴복한 대가를 차려주고 사상과 제도를 양보한 값에 얻는 향락 아닌 향락이 우리 인민에게는 추호도 용납되지 않았다. 지금도 추상같이 울려오는 메아리-나에게서 그 어떤 변화를 바라지 말라! 그것은 총대로 인민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위대한 수호자의 드림없는 의지의 분출, 이 땅은 어제도 오늘도 선군의 보루로 높이 솟아 빛을 뿌릴것이라는 필승의 선언이었다. 그 신념 안고 왔으니 다박솔초소였고 그 의지 안고 헤치신 오성산의 152굴이 칼벼랑길이었으며 그 열망 안고 넘고넘의

신 철령의 험준한 산밭이었다. 천신만고끝에 사회주의대지는 그 얼마나 만복의 터전으로 땅땅 다져졌고 총대로 그려지는 행복의 전경도는 얼마나 인민의 가슴 신심에 차넘치게 하였던가. 대흥단의 감자꽃바다며 범안리의 선경, 조선의 철갑상어자랑,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사과꽃바다, 철령아래 사과바다, 비남론대경사가 그대 끝까지 선군을 한 덕에 정취한 자랑찬 전취물이 아닌 말인가. 우리 장군님 선군의 길우에 씨를 뿌려 가꾸어 주신 행복이 아니라 말인가. 그 길우에 무르익는 오늘의 사회주의부귀영화이다. 나날이 풍성해지고 나날이 무르익어가는 만복의 열매이다. 사람들이여, 후대들이여, 그대들이 맞고보내는 이 땅의 날들을 결코 지구의 자전으로 이어지는것으로만 여기지 마시라. 선군의 의지로 고통친 그이의 위대한 심장의 박동이 오늘도

우리 삶의 순간순간으로 이어지는것이고 선군으로 앞당겨주신 인민의 미래가 너와 나, 자손만대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 것이다. 인민의 그 행복, 그 기쁨을 지켜 오늘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장군님 걸으시던 선군의 길을 이어가신다. 두해전 전선길에서 뜻깊은 선군절을 맞으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도 천만의 심장을 팡팡 두드린다. 《동무들! 승리를 확신합시다. 밝은 미래는 우리 인민의 것입니다. 인민의 행복과 안녕, 백두산대국의 존엄을 지켜 혁명의 총대를 더욱 굳게 틀어잡읍시다.》 수령님께서 걸으시었고 장군님께서 헤치시었던 선군혁명의 그 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꼭 가야 할 길이라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파도 세찬 날바다길에도 서슴없이

나서시었고 폭음우리는 혼련장, 적진이 눈앞에 도사린 최전연초소에도 나가시었다. 철세위인의 인민사랑으로 총탄된 선군의 그 나날과 더불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담보하는 별진의 생마는 더 높이 날아올랐고 우리 조국은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우주강국, 핵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선군, 정녕 그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추켜드셨고 우리 원수님들께서 세기를 이어 높이 추켜들고나가는 승리의 보검, 만복의 보검이거늘 인민이여, 영원한 행복속에 사는 그 영광, 그 행은 노래하며 마음껏 웃으시라, 더 힘차게 나아가라. 그대들의 앞길에 선군의 햇빛이 눈부시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축복해주신다. 글 분사기자 박옥경 사진 분사기자 김종훈 분사기자 전성남



다 박 솔 초 소 의 설 경



철 령 의 철 쪽



문 수 물 놀 이 장



마 석 령 스 키 장



통 라 곰 둥 어 관



미 림 승 마 구 락 부



개 선 청 년 공 원 유 희 장



김 일 성 종 합 대 학 교 육 자 살 림 집



은 하 과 학 자 거 리 살 림 집

